

### 전문가에게 듣는다

### IMF 생약업계 전망

성낙술 박사

(농진청 특용작물개발연구실장)

# 국산생약 경쟁력 있나

▶ 환율인상 영향으로 다른 원자재값도 상승함에 따라 생약농업도 큰 갈림길에 들어서게 됐다. IMF구제금융신청이라는 위기국면속에서 국내 생약농업 전망은.

갑자기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지금 국내 생약재배농민과 생약업계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 약용작물 연구의 사령탑이라 할만한 곳, 농진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개발연구실의 성낙술 박사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었다.

#### 국산경쟁력 확보기회

△우선은 환율상승으로 수입약재값이 많이 오르고 수요도 현저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산약재는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국산과 가격차이가 10배이상 나던 수입약재들도 이제 국산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시세차가 좁혀졌다.

국내 생약재의 고품질화에 힘쓰는 대신 생산원가를 절감,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국산약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MF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약재배농민들의 대처방안은.

#### 생산기반 다져나가야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입품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값의 우량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문 약용작물 생산농민으로 살아남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품목을 끈질기게 계속 재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수요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량소비처와 계약재배를 통해 필요한 양만을 생산하는 지제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가격예시제도 고려해 볼만하다. 즉, 어떤 품목이든 생산자와 최저가격을 설정해 소비자단체에 예시하는 것이다. 종자값, 노임, 비료대, 방제비, 토지용역비, 광열비, 동력비 등의 투입비에 자가노력비, 목표수익 등을 더한 가격, 결론적으로 '이만하면 농사지을 만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소비자단체에 알린 뒤 계약재배하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약재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을 발굴해서 국내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다. 이제 기술집약적이고 늘 연구개발하는 선도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 ▶경쟁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

#### 지황, 시호, 백출등 다양

△감초, 지황, 시호, 백출등 국내생산기반이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약재들은 일단 국내자급을 목표로 순화재배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품목들이다.

그중에서도 지황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물시험장은 92년에 중국의 약용식물개발연구소로부터 지황종근을 소량 입수해 3년간 포기를 늘리며 특성과 수량성을 검정한 결과 우리의 재래종보다 뿌리가 월등히 굵고 자람새도 왕성하며 수확량도 3~4배쯤 높음을 확인했다. 96년에 '지황 1호'로 이름을 붙였으며 현재 이 품종에 대한 재배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농가소득측면에서 지황의 수

우리나라의 연간 건지황 수요량이 2천5백t(일때 약 6백25ha(약 1백90만평)를 재배하면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지황은 중요한방약재이므로 좋은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 자급한다면 연간 3백50만달러(약 50억원)의 외화도 절약할 수 있다.

#### ▶농진청 작물시험장 차원에서 생약재의 우량품종육성과 국내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새롭게 구상중인 사업계획안이 있다면.

#### '지황 1호' 계약재배 계획

△앞서말한 '지황 1호'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농진청 차원에서 지황재배적지인 남도지역 농민들과 직접 1만여평 정도 계약재배를 시도할 생각이 다. 원광대학 부설 원광제약이라



## 기술집약적인 선도농가만 살아남을 수 있어 생산비절감·고품질화 이룬다면 경쟁력 있어 지황·백출등 수입의존품목 생산기반마련 절실

익성과, 판로를 포함한 재배전망은.

#### 연 50억 외화절약 가능

△환율인상 전에는 kg에 1천5백만원이던 수입지황이 지금 kg당 3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1kg에 6백원에 공급할 수 있으면 건지황으로는 1kg당 3천원이 되는데 이 값은 현재 수입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약업체 등에 충분히 판로를 열 수 있다. 또 생산자의 경우 10a(3백평)당 2천kg만 생산해도 1백20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하며 기술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지황을 전량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신품종(지황 1호)의 수확량이 10a당 2천kg일때 건지황의 건조비율이 20% 정도 이므로 10a당 4백kg이 생산되며

는 숙지황제조업소와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중요한것은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지황의 경우 다른 약재에 비해 손이 덜가고 생산비가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평당 수확량만 늘리면 생산원가를 줄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감초도 중국에서 4가지 종류를 들여와 올해부터 시험재배에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시험재배중인 개량종 백출도 아직 국내 재배법이 미확립된 상태이긴 하지만 재배기반만 안정된다면 충분히 자급도 가능한 품목이다. 백출재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기반마련 차원에서 국내

생약농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지.

#### 실질적 주산단지 육성

△IMF구조조정이다 해서 정부 예산이 감축되는 추세다. 문제는 책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생약수매자금중은 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같은 수매자금 지원도 생산기반 조성 차원에 초점을 두고 국내 재배약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수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특작관련 연구사업만 해도 같은 내용의 연구과제에 귀한 정부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부가 지정 고시한 주산단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육성이 생약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 ▶IMF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어찌됐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생약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정보수집 기능 강화

△우선 수출대상국의 수요량 수입가격품질요구 규격 등을 아는게 중요하다. 아직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실조차 한약재에 관한 일본정보가 없다. 유통공사뿐 아니라 재외공관,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생약협회가 주관 생약수출업체들로 구성된 민간 생약수출촉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용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쟁국인 중국, 일본은 중앙은 물론 지방마다 약용작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독립된 전문연구기관이 없어 설립이 절실하다. <문정희>